

아이들 시선으로 그린 가족사랑 그림일기

전북여성가족재단, 공모전 수상자 12명 발표... 수상작 홈페이지·청사 내부 게시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정정희)이 '2024년 가족사랑 그림일기 공모전' 수상자 12명을 발표했다.

공모전은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공유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해 구성원 간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그림일기 공모전은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홈쇼핑 어린이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유아부 181건, 초등부 179건 등 총 360건의 그림일기가 접수돼 이 중 12개의 작품이 아동분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경합을 펼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2명의 수상자에게는 부문별 상장 및 상금(총 110만 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아부 대상은 군산 중앙유치원의 이현진(5)학생이 차지했다. 이현진 학생은 가족들과 찜질방에서 보낸 즐거운 시간을 포레의 눈높이에서 그림과 글로 실감나게 표현했다.

초등부 대상은 진안 조림초등학교의 한유준(8)학생이 수상했다. 한유준 학생은 아버지의 육아휴직으로 서울에서 진안으로 농촌 유학의 와 가족이 더 가까워져서 행복한 마음을 일기로 표현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유아부 대상 이현진



초등부 대상 한유준

그림을 그려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분야별 수상자는 △유아부 최우수상 신아라(군산 아이세상유치원), 김서운(서정주유치원) △유아부 우수상 김지오(군산 가람유치원), 최서빈(익산 관행유치원), 박수현(전주 예술어린이집) △초등부 최우수상 박지완(이리모현초등학교), 조서연(전주인봉초등학교), △초등부 우수상 서다운(전주용흥초등학교), 이예은(고창남초등학교), 김재민(군산아리울초등학교)

과 호응 속에 아이들 시선으로 그려진 멋진 그림일기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함께 누리는 복지 실현을 위해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가족사랑 그림일기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전화 063)254-3813 혹은 홈페이지(www.jbw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장수문화원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성료

제3회 장수 문화원의 날 · 제16회 장수 문화예술인의 날

장수문화원(원장 한병태)은 지난 23일 '창립 30주년 기념 제3회 장수 문화원의 날 및 제16회 장수 문화예술인의 날' 행사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장수군이 주최, 장수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의장, 박용근 도의원을 비롯한 한병태 전북문화원연합회장 겸 장수문화원장, 김길수 경성남도문화원연합회장 겸 진주문화원장, 각 시·군 문화원장 및 지역 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퓨전 난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공로패 수여, 식후 공연 순으로 이뤄졌으며 식후 공연으로는 장수 건물 무용단의 부채춤, 진주·임실문화원의 민요, 판굿연희 등 초청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전시실에서는 문화학교 강좌로 운영되고 있는 민화반과 석각반의 작품전과 체험, 전문예술인과 단체들로 선정된 문화예술진흥사업 작품전도 함께 전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 군 문화예술 발전에 공적이 큰 장수문화원 고태봉씨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로패, (사)전북가어연구원 안영태 원장에게 장수군수 공로패, 한국무용가 최혜영씨에게 장수군의회의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김일한 장수문화원 이사에게 한국문화원연합회장 공로패, 광계근 군산대학교 박물관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장 공로패, 장계면 백성훈 주무관에게 장수문화원장 감사패가 각각 수여됐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판소리 전래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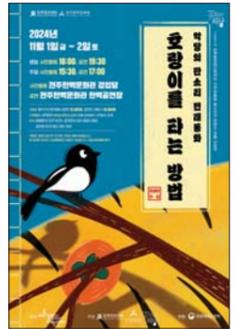
내달 1-2일 '호랑이를 타는 방법' 공연

전주한벽문화관이 어린이를 비롯해 온 가족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웹메이드 창작 판소리극 '판소리 전래동화 <호랑이를 타는 방법>'을 11월 1-2일 양일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에 전주문화재단이 선정돼 실행되는 것으로, 지난 8월 '타오른 화일 아류'에 이은 두 번째 공연이다.

24일 재단에 따르면 공연 <호랑이를 타는 방법>은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공연을 선보이는 실력과 국악 단체 '악당'의 최근작으로, 2022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전통예술분야에 선정된 작품이다.

<호랑이를 타는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호랑이와 꽃길'을 모티브로 친근하면서도 정통 판소리 맛을 제대로 살린 작품이다. 국립극장 창극 아카데미 연출가이자 아동·청소년극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최여림 씨가 연출, 공연예술 분야의 유명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윤브레 씨가 음악감독과 악사를 맡고 2024 전주대사습놀이 명창부 차차 상을



받은 김윤아 씨가 소리꾼으로 출연한다.

공연은 판소리 극인 만큼 소리와 악기가 풍성하게 연주 되면서도 꽃길, 호랑이, 도적, 곰 등 어떠한 대상이 가진 고정관념과 편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상상으로 뛰어넘는 즐거운 시간이 될 전망이다. 또한, 매회 선착순 사전 예약자 50명에게는 사전 활동으로 '소리 그리기', '네온 조명 만들기' 등 참신한 체험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공연 시간은 11월 1일 오후 7시 30분, 2일 오후 5시며, 장소는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이다.

예매는 우리 지역 공연 예매 플랫폼 '나투컬처(naturculture.com)'에서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오픈스튜디오 행사 진행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25~27일 3일간 팔복예술공장 창작스튜디오를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 : CREATIVE-LAB'을 진행한다

고 밝혔다. 행사 기간 중인 25일에는 팔복예술공장 세미나실에서 흥경한 평평가의 '사색'을 통한 동시대미술 톨아보기' 특강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오픈스튜디오 : CREATIVE-LAB'은 팔복예술공장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올해 2월부터 입주해 있는 7기 작가들이 6개월

여 간 작업한 창작 성과를 관람객에게 선보이는 자리다. 작가들은 설치, 그래픽, 입체조형, 드로잉, 조각, 사진, 영상 아트, 한국화 등 다채로운 장르로 작업에 몰두해 왔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팔복예술공장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작업 현장을 둘러볼 수 있으며, 행사와 함께 7인 작가의 원데이 클래스도 준비돼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와 문화인류학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11월 2일 전라감영 선화당에서 한지를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한지와 문화인류학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지 토크콘서트는 전당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한지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기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조선시대 지소(紙所, 종이를 만들어 국가에 바치는 특수 지방 행정 단

위)가 위치했던 전라감영 내에서 1·2부로 나눠 진행해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토크콘서트 1부는 김영주 트리오의 재즈 공연, 2부는 역사 스토리텔러로 알려진 선 김의 강연으로 진행, 한지의 역사와 문화를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한지의 미래 가능성을 논의한다.

이번 한지 토크콘서트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 애트모스 사운드 스튜디오 기술세미나·시연회 개최

전주대 인문콘텐츠대학은 진리관 C-nergy LAB 내 애트모스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기술세미나 및 돌비 애트모스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돌비 애트모스 뮤직 스튜디오 인증에 대한 현판식을 시작으로 돌비코리아 박영환 기술차장의 돌비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한 후 진리관 C-nergy Lab과 1층을 통

해 돌비 애트모스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연회를 가졌다.

특히,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적용돼 프로페셔널 스튜디오에 등재된 '애트모스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음악 제작 시연과 돌비 기술이 적용된 VR 시연, 그리고 차량용 돌비 애트모스 장착된 차량을 통해 현장감이 있는 몰입형 사운드를 경험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업인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청년애 희망을, 노년애 행복을, 농업애 미래를

농지은행은 농지관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농지은행'을 검색하세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농지연금사업

- 만6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원
- 배우자 승계가능, 가입비 없고 재산세 감면 혜택

청년우계농, 2030세대, 우계농업인 농지우선지원

- 청년우계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경영화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임대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과원규모화사업

- 고령·은퇴농, 비농업인 등의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과수전용농성세대양자, 2030세대 등에게 매도, 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 자력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

농림축산식품부 **kf** 한국농어촌공사 두진지사 **fb** 농지은행

상담/문의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